

“머신러닝 활용 고위험 천식 환자 가려내”

이용권기자 freeuse@munhwa.com

신은경 **美的과대학 연구원 개발**
논문 ‘네이처’ 의학저널에 실려

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사회지표만으로 고위험 천식 환자를 분류하는 시스템이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개발돼 국제저널에 실렸다.

신은경(사진) 미국 테네시과의과대학 생명공학정보센터 연구원은 ‘Sociomarkers and biomarkers : 병원 재방문 위험이 있는 소아 천식환자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링’ 연구논문이 ‘네이처’의 디지털 의학저널에 실렸다고 2일 밝혔다. 위험 천식 환자를 예측하는데,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66%의 정확도로 위험천식환자군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다. 신 연구원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학자다. 신 연구원은 증상 관련 의료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지표인 성별, 인종, 나이, 보험종류, 우편번호만으로 위험천식환자군을 가려내는 성과를 얻었다.



신 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“우리가 흔히 개인의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, 사적 영역의 결과물로 간주하는 것에 반해, 어떻게 위험소아천식환자군이 사회적지표(Sociomarker)만을 가지고도 예측 가능한지를 머신러닝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을 시도한 첫 번째 연구”라고 말했다. 신 연구원은 “효과적인 정책 정립과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배분을 위해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데이터가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”고 말했다. 신 연구원은 “앞으로도 넓은 의미에서 의학에 사회학을 접목한 시도들을 계속할 예정”이라며 “장기적으로 사회적 환경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”고 말했다.

이용권 기자 freeuse@munhwa.com